

무형문화재 이수자 역량강화 나선다

국립무형유산원, 이수자 작품전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활동 지원사업도 시행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가 주관하는 2017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작품전이 오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열쑤마루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수자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토대이자 희망인 이수자들의 작품만을 전시해 전통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

전체 출품작은 총 40종목에 50점으로, 최고 기량을 가진 이수자들의 우수작만을 엄선했기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못지않은 뛰어난 작품을 직접 만나보는 기

회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이수자 작품전에 참여한 이수자를 독려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총 6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국립무형유산원장상에는 '절제금음입사용문축대(김신정)', '강화반딧이(양석중)', '금음장환연화문낙죽장도(정운숙)'가 선정됐으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상에는 '수덕사 대공(김부섭)', '한반도 범종(원전수)', '쌍희자귀갑문발(조숙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전시회 개최 전날인 19일 오후 3시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열쑤마루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이수자 작품전 개막식에서 개최하며, 시상식과 함께 기념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작품전과 시상식 등 행사에 관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063-280-1445) 또는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02-3453-168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립무형유산원은 이수자 역량 강화와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이수자 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젊은 이수자의 시기 진작과 다음 세대로의 전승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이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기존의 보유자와 보유단체 위주의 전승 활동에서 이수자 단독, 합동공연 행사 지원을 통해 이수자만의 전승활동 영역 확

대와 전승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능종목 이수자 개인과 보유단체(이수자 및 전수생 대상)를 대상으로 총 53건(개인 31건, 단체 22건)의 사업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선정된 37건(개인 21건, 단체 16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이수자 개인 또는 단체에는 각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활동비가 지급되며 올해 하반기까지 이수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꾸미는 37회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이들의 차별화된 역량을 확인하고 관객들에게는 전통예술이 가진 깊이와 가능성을 경험해 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지속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20일 해금살롱의 무대 선보여

'2017 토요일초대석' 국악타파에서는 해금을 통해 과거의 음악을 현재의 음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해금살롱의 무대를 오는 20일 오후 3시 예음헌에서 마련한다.

해금살롱은 한국 전통민요를, 보사노바, 재즈, 탱고, 스윙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편곡 연주하는 팀으로 해금 정겨운과, 피아노 김유니, 기타 박윤성이 지난해 결성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현대인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자작곡도 여럿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내용은 전통민요 도라지, 한오백년, 군발타령, 날리리야와 자작곡 숲속의 빨간구두, 달빛에 흐르는 눈물, 내가 결혼 못하는 이유, 밤이 찾아오면, 구름위로, 가시리, 벚꽃 그날의 기억, 아름다운 날들이다.

전통민요의 재해석과 자작곡을 연주하는 두가지 컨셉으로 전통음악과 전통악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은 총 100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매회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연은 전석무료이며, 전화(063-020-2328)로 예약이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문화누리카드로 U-20 월드컵 경기 반값에 관람하자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예매하면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매방법은 인터넷 모바일홈페이지 (kr.fifa.com/u20ticket)를 활용하거나 U-20 콜센터(1544-1556)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더 손쉬운 방법으로는 19일까지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 운영되는 현장대표소와 경기 당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동측 광장 대표소에 서도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는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한지문화축제 홍보대사에 국악인 남상일씨

19일 축제 개막식서 한지 한복입고 특별공연 펼쳐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6일 '전주한지문화축제 홍보대사'로 국악인 남상일씨를 위촉했다.

전주한지문화축제 홍보대사는 전주한지문화축제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남상일씨는 전주출신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이후 최연소로 국립창극단에 입단했다.

관소리, 창, 국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악신동'으로 알려진 남 홍보대사는 최근 예능계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해 '국악 예능인'으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KBS 불후의 명곡,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한 이후 '국악계 아이돌'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상일 홍보대사는 "어릴 때부터 국악을 시작해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국악인으로써 전주한지가 대한민국 전역에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홍보대사는 전주한지문화축제 개막식인 19일 오후 6시에 한지한복을 입고 특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 공연에는 록밴드 국카스텐, 소프라노 김민지, 탤런트 김수미, 살림예술가 이효재씨가 함께 한다.

한편 전주한지문화축제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1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한지축제에서는 '대한민국 한지에술대전 전시회', '2017한지패션대전', '한지산업박람회', '한지공예체험' 등 한지에 관한 다양한 행사와 체험이 전개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알리기 분주

전북도와 문화재청(재)백제세계유산센터는 언론관계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투어는 찬란했던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고대 동아시아 문화를 황금기로 이끌었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등재된 백제후기의 왕성, 사할터, 왕릉, 그리고 외곽성으로 이들은 백제의 문

화발전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답사는 세계유산인 공주 공산성을 시작으로 송산리고분군, 부여의 정림사지,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나성, 백제문화단지, 그리고 익산의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등 8개 유적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백제가 중국,일본 등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간에 활발한 문물교류를 통해 불교와 예술, 건축기술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중국의 선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뒤 주변 왕국들에게 이를 다시 전해줬다사실을 공감했다"며 "동아시아 문명형성에 기여한

백제의 역할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팸투어에 참여한 언론관계자들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인류문명사적 가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바로알고 보존해야 할 세계적인 유산인 만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적을 찾을 수 있도록 알리는데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 백제역사지구는 관광콘텐츠개발과 특별함이 있는 체험 등 즐길거리 개발, 특색있는 음식과 먹거리에 대한 정보, 다양한 여행객 숙소, 개별여행객 입장에서의

도-문화재청-백제유산센터 언론인들 대상 팸투어 진행

현장 접근성과 이동간 교통수단 등이 약점이라며 문화유적을 기반으로 관광자원화해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전북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팸투어를 포함 올해 총 5회에 걸쳐 학교 교장단, 주한 외국인 유학생, 현장 체험학습 전문업체 및 인바운드 여행업체 상품개발자, 국제결혼 이주자 등 다양한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세계유산과 고도내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연계한 '고도 세계유산 팸투어'를 운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군산시립예술단, '5월, 애니메이션 펼치다' 연주회

군산시립예술단(단장 한준수 부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5월, 애니메이션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합동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상임지휘자 백정현의 지휘 아래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함께 물리메들리를 시작으로 알리딘, 라퐁젤, 겨울왕국, 미녀와 야수, 소중한 날의 꿈 등이다.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와 함께 7080세대의 만화영화 음악을 귀로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만화 속 명장면과 주인공들을 스크린을 통해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무대로 재현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은 생후 36개월 이상의 아동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공연티켓은 전석 5천원으로 금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현장티켓은 공연당일 공연 한 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군산=장현 기자

전통문화전당, 핸드메이드 야간 프로그램 운영

"바쁜 직장생활과 일상으로부터 탈출해 한 번 쯤 심포를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이런 직장인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제공하기 위해 핸드메이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직장인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직장인을 위한 공예 전문교육 '삶의 쉼표(Comma)'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삶의 쉼표'는 핸드메이드 바느질(월), 칠보공예(화), 패션페인팅(수), 한지등 만들기(목)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0주간 무료로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ECO융합섬유연구원 2017년 4~6월 복합섬유소재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에코융합섬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xtile)은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혁을 선도하여 미래를 준비해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CEO 및 재직자 교육 안내

일시	기술역량강화세미나 : 재직자 대상
4월 18일	하이브리드 복합 섬유소재 첨가공 기술동향
5월 2일	3D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방안
일시	생산/연구장비 활용 실습교육 : 재직자 대상
4월 19일 ~ 21일	화학적 분석장비(SEM-EDX, GC/MS 등)
5월 17일 ~ 19일	물리적 분석장비(균제도, 태, 인장강도, SEM 등)
일시	기업기술경영 역량강화교육 : CEO 및 관리자 대상
4월 25일 ~ 26일	글로벌 시장 대응형 경영혁신
5월 23일 ~ 24일	섬유제품 생산관리

* 상기 교육은 기업신청에 따라 상세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및 신청 : Tel. (063) 830 - 3579 E-mail : sulhwa9280@kictex.re.kr

기술개발 및 사업분석, 시제품 생산, 기술, 정보제공,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창업기업지원, 지식재산권, 연구용역 수행

[54888]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 639번지 (서동로 594)
Tel. (063) 830 - 3576 Fax. (063) 830-3540 www.kictex.re.kr